

말씀의 샘

우리의 참 주인 <누가복음 4:5~8>

똑같은 집이라도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왕이 살면 왕궁이고, 영화 배우가 살면 영화 배우의 집이고, 중국 사람이 살면 중국 사람의 집, 도둑이 살면 도둑놈 집입니다. 레노베이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다른 것을 아무리 바꾼다 해도 주인이 바뀌어야 정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게를 열을 때나, 집을 얻을 때, 살인사건이 났던 곳이나 범죄자가 살았던 곳이라고 알려지면 집값도 낮아지고 거래도 어렵습니다.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집이 크게 달라지듯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집을 지배하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타니즘은 18c말, 19c초에 알리스터 크라우리(Alister Crowley)가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사상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것이 법칙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이 문장은 1993년 옥스포드 인용구 대사전에 실렸습니다. 크라우리는 마법을 신봉했으며 크라우리 사후 안톤 라베이(Anton Szandor Lavey)가 1966년 공식적으로 사탄교(Church of Satan)을 창시하고 사탄교의 교리와 사상이 담긴 사타닉 바이블과 사타닉 리추얼을 썼다고 합니다. 사탄교 바이블,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사탄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죽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앞에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4: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리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이 자기 영역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 세상 영광과 물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며 그것을 미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이 세상에서 추구하기 원하는 것의 낚시줄을 계속 따라가며 삼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속에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 미끼를 물고 살다가 물밖에 나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낚시의 주인공이 사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을 좇아 살아가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복음 4: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며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결단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삼아 당당하게 믿음으로 현혹되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나의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 기준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본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목표와 계획,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 주로 많이 말하게 되는 것, 내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자리잡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낙과 이유,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 내 고민의 내용,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이유들... 등입니다.

마태복음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이 우선이라면 그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 믿었고 율법도 근실히 이행하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재물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의 실제 주인은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자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 예수님은 "내 이름", 즉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도 주인되지 않도록 살아간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 없음을 시사해주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거나 독선적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로 싸움이 많지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두 주인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나 마귀냐의 선택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영생과 세상, 하나님과 내 욕심, 세상과 천국 등 중간은 없습니다. 옛날에 노예나 짐승에게 도장을 치는 의미는 "내꺼"라는 표식입니다 주인이 자기 것이라는 표식으로 찍은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사람들이 그 도장을 보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기는 하고 실제로 도장이 찍혀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이거나 마귀가 되어 자동적으로 마귀의 화인을 맞던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을 받으면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면서 내 힘이 아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성령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인을 맞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 영적 세계에 대한 사모함과 두려움, 그리고 갈망이 완전히 무뎝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영적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죄의식이 없어지며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죽은 심령을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백,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경영하시는 특성이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소유된 자녀에게 나타내시며 천국백성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3: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비전, 말씀, 약속도 심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놀랍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로만 알고 끝나면 모든 깨달음이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로마서6: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권세와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017년 1월 29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7. 2. 5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표기도 ----- 문 정아 집사

헌금

성경봉독 ----- 요한복음 6:1~13

말씀선포 ----- 이 강화 목사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축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8:00

